

살아 있는 공간을 이 지역에 만든다면 더할 나위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트렌드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을 하면서 번두리러 거처를 옮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나요? 주요 업무는 밀라노와 파리 같은 곳에서 이뤄질 테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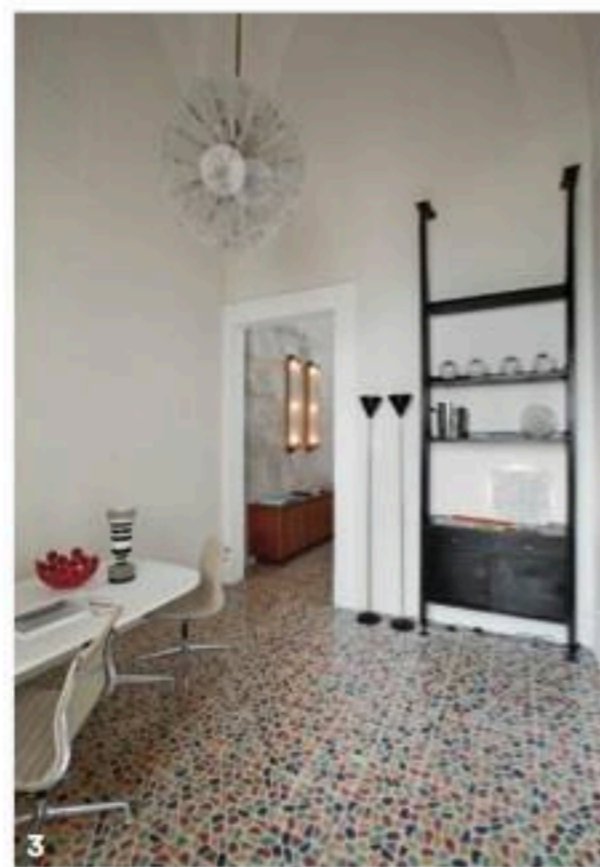
한치의 고민도 없었어요. 10년 전부터 시작한 '노마드 워킹' 덕분이죠. 노트북과 스마트폰, 통신망이 있으면 장소에 관계없이 충분히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시대를 확신했습니다. 물론 밀라노를 거점으로 일하기에 이를 무시할 순 없지만, 여기서 비행기를 타면 1시간 반 만에 도착해요. 그리고 겨울 시즌에는 밀라노와 돌로미티 등에서 생활합니다. 여기에 머무는 동안 오히려 창의적인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업무를 하는 데 더 효율적이에요.

**시간이 멈춘 듯한 도시, 바로크 시대의 건물에 사는데, 창의력이 샘솟는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 업무 중 반 이상은 럭셔리 호텔 및 여행 사업과 관련이 깊어요. 고급 휴양 문화를 조성하고 홍보하는 만큼 우리 또한 그러한 라이프스타일을 직접 경험하고 발전시켜야 하는데, 이곳이 딱 그런 조건을 갖췄지요. 우리의 관심사 중 하나가 이탈리아 미드센트리(1950년대) 모던 디자인 컬렉션인데, 이를 토대로 집을 꾸미면서 수많은 아이디어가 탄생하고 실행되었으며, 이로써 개인적인 꿈도 이뤄졌습니다.



2



3

1 게스트 베드를 체크보드 패턴 타일을 살리고 미드센트리 모던 감성의 컬러로 벽면을 꾸몄다. 침대는 필립 스타크 디자인 사이드보드 위에 놓인 컬러풀한 베이스는 에도레 소트사스가 1970년대에 디자인한 빈티지다. 스탠드 조명은 안토니오 소콜리리 디자인 2 이 집에 놓인 가구 대부분은 지오 폰티 디자인으로, 알체아 역시 그의 작품이다. 3 컬러풀한 타일 바닥이 눈길을 끄는 다이닝룸. 12명의 친구를 초대할 만큼 넓은 공간으로, 블랙 선반은 프랑코 알레니가 디자인한 빈티지 컬렉션이다.

주방과 다이닝룸. 1950년대에 제작된 에도레 소트사스 컬러풀한 베이스가 놓여 있다. 침실 아래에는 지오 폰티의 프라타나 Gianfranco Ferré가 디자인한 빈티지 사이드보드 컬렉션이 자리 잡았다.

